

2026년 지방직 9급 회계학(D책형) 총평 및 해설 (공단기 김성수 교수)

재무회계 : 14문제

원가관리회계 : 4문제

정부회계 : 2문제

계산문제 : 10문제

이론문제 : 10문제

2026년 지방직 9급 회계학은 전반적으로 중상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계산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많지 않았으나, 재무회계 기준서의 정확한 이해와 원가회계의 의사결정 논리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배치되어 수험생 간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출제 영역은 재무회계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일반목적재무보고, 재무제표 표시, 수익인식, 금융상품, 투자부동산, 총당부채, 재고자산 등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원가회계에서는 원가배부, 종합원가계산, 원가계산방법, 결합원가 의사결정 문제가 출제되어 기본개념과 계산능력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관련 문제가 2문항 출제되어 정부회계 영역도 기존 출제경향을 유지하였다.

계산문제는 선수임대료, 선급보험료, 사채할인발행차금, 유형자산 처분, 투자부동산 평가, 종합원가계산, 결합제품 추가가공 의사결정, 재고자산회전율, 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등에서 출제되었다. 대부분 기본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13번 결합제품 추가가공 의사결정과 20번 시가 이하 유상증자 문제는 정확한 개념 이해가 없으면 실수하기 쉬운 문항이었다.

이번 시험의 고난도 문항은 5번 사채할인발행차금, 13번 결합제품 추가가공 의사결정, 18번 금융자산 분류, 20번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볼 수 있다. 반면 1번, 2번, 9번, 14번, 15번, 16번은 기준서 문장과 기본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2026년 지방직 9급 회계학은 이론과 계산의 균형이 잘 맞춰진 시험이며, 단순 암기보다는 회계처리의 원리와 기준서 문장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 시험이었다. 예상 합격권 수험생 기준으로는 80점 이상, 상위권 수험생은 90점 이상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일반목적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 ②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 ③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1. ③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2.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③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 ④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총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총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2. ④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총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총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기초 선수임대료는 ₩30,000이며, 당기 임대료 현금수취액은 ₩50,000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임대료수익이 ₩40,000이라면 기말 선수임대료는?

- ① ₩30,000
- ② ₩40,000
- ③ ₩50,000
- ④ ₩60,000

3. ②

IS조정 : (+)₩40,000

BS조정 : (+)₩10,000 (기초부채 ₩30,000, 기말부채 ₩40,000)

CF : (+)₩50,000

6.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단, 현금배당은 당기 중에 결의 및 지급되었다)

○ 기초자산	₩200,000	○ 기초부채	₩100,000
○ 기말자산	₩300,000	○ 기말부채	₩100,000
○ 현금배당	₩150,000		

- ① ₩100,000
- ② ₩150,000
- ③ ₩200,000
- ④ ₩250,000

6. ④

- (1) 기초자본 : ₩200,000 - ₩100,000 = ₩100,000
- (2) 기말자본 : ₩300,000 - ₩100,000 = ₩200,000
- (3) 자본증가 : ₩200,000(2) - ₩100,000(1) = ₩100,000
- (4) 당기순이익 : ₩100,000(3) + ₩150,000 = ₩250,000

7. (주)한국은 20×1년 7월 초 기계장치(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5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3년 6월 말 해당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현금을 수취하였으며, 처분손실 ₩60,000을 인식하였다. (주)한국이 기계장치 처분 시 수취한 현금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 ① ₩140,000
- ② ₩240,000
- ③ ₩340,000
- ④ ₩440,000

7. ②

- (1) 20×3년 6월 말 장부금액 : ₩500,000 - ₩500,000 × 2/5 = ₩300,000
- (2) 처분손실 (-)₩60,000 = 처분가 - ₩300,000(1)
- ∴ 처분가 : ₩240,000

8.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20,000에 취득하였으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건물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22,000이다. 동 건물에 대해 (주)한국이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을 각각 적용한 경우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 | | |
|-------------|-----------|
| 원가모형 | 공정가치모형 |
| ① ₩2,000 증가 | 영향없음 |
| ② ₩2,000 증가 | ₩2,000 감소 |

- ③ ₩4,000 감소 영향없음
- ④ ₩4,000 감소 ₩2,000 증가

8. ④

- (1) 원가모형 당기순이익 : ₩20,000/5년=₩4,000 감소
- (2) 공정가치모형 당기순이익 : ₩22,000-₩20,000=2,000 증가

9. (주)한국은 상품매매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이 기말상품재고를 과대계상하였다면,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 ① 과소평가 과대평가
- ② 과소평가 과소평가
- ③ 과대평가 과대평가
- ④ 과대평가 과소평가

9. ①

기말재고 과대계상 → 매출원가 과소계상 →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10. 원가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가배부기준은 인과관계기준에 의해서만 설정되어야 한다.
- ② 원가배부는 발생한 원가를 원가대상에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대상에 할당해야 하는 직접원가를 대상으로 한다.
- ③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원가를 단일배부기준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하면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이중배부율법(dual rate method)은 지원부문의 원가를 다른 부문에 배부할 때 지원부문의 고정원가는 사용부문의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지원부문의 변동원가는 사용부문의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10. ③

- ① 원가배부기준은 인과관계기준, 수혜기준, 부담능력기준 등이 있다.
- ② 원가배부는 발생한 원가를 원가대상에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대상에 할당해야 하는 간접원가를 대상으로 한다.
- ④ 이중배부율법은 고정원가는 최대사용량 기준으로 배부하고,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11.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기말재공품 완성도는? (단, 공손과 감손은 없다)

<input type="radio"/> 기초재공품	없음	<input type="radio"/> 직접재료원가	₩850,000
<input type="radio"/> 당기완성품	5,000 단위	<input type="radio"/> 가공(전환)원가	₩800,000
<input type="radio"/> 기말재공품	1,000 단위	<input type="radio"/>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300

- ① 20%
- ② 30%
- ③ 40%
- ④ 50%

11. ④

(1) 완성품환산량 단가 ₩300 = (₩850,000+₩800,000)/환산량(5,500개)

(2)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 5,000개

기말 : 1,000개 × 50% = 500개

합계 : 5,500개

12.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은 생산량에도 영향을 받는다.
- ② 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만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 ③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보다 항상 크다.
- ④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 이외의 제조원가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경영자로 하여금 제품 재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12. ③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보다 항상 큰 것은 아니다. 만약, 기말재고가 0이라면 두 영업이익은 동일하다.

13. (주)한국은 결합생산공정을 통해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으며,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해 결합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당기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결합원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격	추가가공 원가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
제품A	<input type="text"/>	₩60,000	₩3,000	₩65,000
제품B	₩20,000	<input type="text"/>	₩2,000	₩31,000
제품C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000	₩80,000
합계	₩100,000	₩150,000	₩10,000	₩176,000

(주)한국이 이익극대화를 위한 추가가공 의사결정 시 얻을 수 있는 최대 증분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① ₩15,000
- ② ₩16,000
- ③ ₩17,000
- ④ ₩26,000

13. ③

	판매가치	순실현가능가치	의사결정	증분이익
제품 A :	₩60,000	₩62,000<주2>	추가가공함	₩2,000
제품 B :	₩30,000<주1>	₩29,000<주3>	추가가공안함	₩0
제품 C :	₩60,000	₩75,000<주4>	추가가공함	₩15,000
				₩17,000

<주1> $₩150,000 \times ₩20,000 / ₩100,000 = ₩30,000$

<주2> $₩65,000 - ₩3,000 = ₩62,000$

<주3> $₩31,000 - ₩2,000 = ₩29,000$

<주4> $₩80,000 - ₩5,000 = ₩75,000$

1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②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③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④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4. ③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1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16. 총당부채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다.
- ② 총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 ③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 ④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총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16. 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다.

1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단, 회전율 계산 시 재고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 매출총이익률	20%	○ 당기 매출액	₩800,000
○ 기말 재고자산	₩200,000	○ 당기 재고자산 순매입액	₩720,000

- ① 2.5회
- ② 3회
- ③ 3.5회
- ④ 4회

17. ④

- (1) 매출원가 : $₩800,000 \times (1 - 20\%) = ₩640,000$
- (2) 기초재고 : $₩640,000(1) + ₩200,000 - ₩720,000 = ₩120,000$
- (3) 재고자산회전율 : $₩640,000 \div [(₩120,000 + ₩200,000) / 2] = 4\text{회}$

18. (주)한국은 20×1년 중 A사 주식 10주를 주당 ₩1,000에 취득하였으며, 주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1,030/주	₩950/주

(주)한국은 20×3년 초 A사 주식을 주당 ₩980에 모두 처분하였다. A사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한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취득 관련 비용은 없다)

-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2년 말 보유 시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20×2년 말 보유 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3년 초 처분 시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20×3년 초 처분 시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18.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20×3년 초 처분 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충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②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 ④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19. ②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는 것은 재화의 판매(한시점에서 수행의무를 충족하는)에 해당한다.

20. (주)한국의 20×1년 보통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	9,000주
○ 7월 1일 보통주 유상증자	2,000주
○ 12월 31일 유통보통주식수	11,000주

7월 1일 유상증자 시 주주우선배정방식에 따라 주당 ₩500으로 발행되었다. 이는 유상증자 직전의 주당 공정가치 ₩1,000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20×1년 (주)한국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로 계산한다)

- ① 10,250주
- ② 10,450주
- ③ 10,750주
- ④ 11,000주

20. ②

- (1) 시가이하 유상증자시 유상증자 : $2,000\text{주} \times \frac{\text{₩}500}{\text{₩}1,000} = 1,000\text{주}$
- (2) 무상증자비율 : $1,000\text{주} / (9,000\text{주} + 1,000\text{주}) = 10\%$
-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9,000\text{주} + 1,000\text{주} \times 6/12) \times 1.1 = 10,450\text{주}$